

특별취재

# 문동신 군산시장 미주 방문 마감

## 군산시, 수질검사 먹는물 '적합'

군산시가 정기적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를 실시해 안전하다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군산시 수돗물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및 시에서 실시한 '정수 수질검사' 결과 58개 항목 중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등 40개 항목은 불검출, 질산성질소 등 17개 항목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 수도꼭지' 지점에 대한 검사결과에서도 대장균 등 세균류 검사결과 불검출로 확인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임이 판명됐다.

시는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의 용담댐 상수원에서부터 가정에서 먹는 수도꼭지까지 수질검사를 결과에 대한 수질정보 등을 담은 리플렛을 제작해 시청 및 읍면동 안내 데스크에 비치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 익산시 중앙지구대, 보이스포싱 예방위해 홍보 활동 전개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는 신종 유행하는 보이스포싱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 곁에 찾아가는 홍보 활동을 펼치는 등 각종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중앙지구대는 최근 도내에서 신종 보이스포싱이 기승을 부리자 이에 대한 예방 일환으로 중앙지구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관내 위치한 아파트 40여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관리소장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포싱 피해예방을 위한 협력을 당부하고 포, 아파트방송을 통해서 경찰이 직접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등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에 앞으로도 중앙지구대는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포싱 피해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추진 보이스포싱을 근절하는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익산=장왕원기자

## 군산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당부

군산시는 2016년도 27분 환경개선부담금 15억2017만1천원(2만9837건)을 부과하고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부과 통지되며,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저공해 인증차량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1대에 한해서는 비과세 처리되며, 경유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가 부과기간 중 매대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중 금융기관 및 우체국은 물론 웨택스(www.wetax.gok.kr),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할 경우 압류 등 체납처분이 실시된다.

/군산=문정곤기자

## 익산소방서, 산악 안전교육 실시

익산소방서는 지난 28일 오후 3시 미륵산 일대에서 익산소방서 직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악안전사고 및 불철 산불예방을 위한 캠페인, 안전산행지도, 심폐소생술 등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했다.

미륵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안내문 배부를 시작으로 주변 등산로를 걸으며 등산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 등산 안전수칙 교육, 등산 전 스트레칭 및 혈압, 혈당체크 등 기초건강검진과 산행구간의 쓰레기 줍기 등 자연정화 활동도 실시했다.

또한 미륵산 등산로를 따라 걷다보면 곳곳에 익산소방서의 붉은색 화재, 구조, 구급신고 알림 표지판 50개소가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등산 중 길을 잃거나 다쳤을 경우에는 119에 표지판 번호와 함께 신고를 하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익산=장왕원기자

## IA지역 대표 수입유통사 4곳과 농수특산물 구매협력 협약 체결

문동신 군산시장이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6박8일간의 미국과 캐나다 일정을 마쳤다.

이번 미주지역 방문은 농수특산물 미주 시장개척, 자매도시 우호증진, 親軍산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문 시장은 샌디에이고, 가든그로브, IA, 타코야, 빅토리아, 밴쿠버로 이어지는 6박8일의 백박한 일정을 쉬지 않고 소화했다.

문 시장은 이번 북미방문을 통해 자매도시 우호교류 증진, 군산시 농수특산물의 수출 확대 모색, 군산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교류 확대 등 각 부문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번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인 지역 농수특산물 시장개척을 위해 IA 지역 대표 수입유통사 4곳과 농수특산물 구매협력 협약을 체결했으며, 미주 내 대형마켓 대표와의 면담과 미주 지역 내 한인단체와 건담을 통해 지역 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구매와 시장개척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문 시장은 2009년부터 8년째 참가하고 있는 IA한인축제 개막식 축사를 통해 군산시와 지역 특산물을 미주지역에 널리 알렸으며, IA 한인축제 VIP 리셉션에 참가해 축제 및 한인 관계자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군산과 새만금 사업이 가지고 있는 부지의 강점을 직접 세일즈로 이어졌다.

또한 엑스포 참가업체의 부스를 찾아 세일즈 활동을 통해 참여업체를 격려하는 한편, 미주지역 대형마트를 방문해 현지 소비패턴과 수출가능 품목 등에 대해 시장조사할 벌이는 등 활발한 세일즈 활동을 전개했다.

방문기간 중 문 시장은 미주 지역 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군산시의 특



타코야시장은 자매결연 발전 및 양국간 우의증진에 대한 공로로 문 시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산품과 발전상에 대한 홍보를 1차로 전개하였고, 1차 홍보전의 효과를 기반으로 IA총영사관 무역관, 관광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관장들과 면담을 통해 미주지역 시장개척을 위한 실질적 자문을 구하고 도와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연일 바쁜 행보를 이어갔다.

23일에는 1979년부터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지속하고 있는 메릴랜드 스트리랜드 타코야 시장의 면담을 통해 양 도시가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교류점을 모색해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타코야시장은 자매결연 발전 및 양국간 우의증진에 대한 공로로 문 시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문 시장 일행은 이어 타코야 한인회 포외의 건담회를 통해 교민들을 격려하고 군산시와 새만금의 발전에 대한

교민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를 요청하는 등 교류협력에 대한 의지를 공고히 했다.

문 시장은 "자매도시를 비롯하여 교류단체와의 우호 협력 증진은 물론 IA한인축제 엑스포 참여와 미주 내 수입 유통사와의 군산시 농수특산물 구매협력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지역 특산물이 미주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번 방문의 성과를 바탕으로 군산시의 성장 동력과 우수한 지역 농수특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전력투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이번 방문으로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와 지속적인 접촉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폭 넓은 교류 추진과 공동발전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 군산시, 고군산군도 수돗물 공급위해 박차

## 183억원 투자 4,000톤 규모 배수지 1개소 · 상수관로 19.7km 매설 사업 시행

해마다 물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선유도 등 5개 도서지역에 내년 초부터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전망이다.

군산시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공사와 더불어 도서지역의 고질적인 물 부족 민원을 항구적으로 해소하고, 고군산군도 개발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지난 2008년부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생활용수 상수도관 매설을 진행해 왔다.

이를 위해 시는 환경부에 수차례 방문 및 건의를 통해 상수도시설 공사에 필요한 국비 120억원을 확보하고 시비 63억원을 합하여 총 183억원을 투자해 4,000톤 규모의 배수지 1개소와 상수관로 19.7km를 매설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시는 고군산군도 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 새만금방조제 구간 상수관로 매설을 완료, 지난 2013년 6월 오식도배수지에서 비응항 입구까지 송수관로를 연결하여 방조제 내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공사와 병행 시공을 위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유기적인 협



군산시는 지난 7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부분개통에 맞춰 신시도~무녀도(고군산대교)까지 상수도관 매설을 완료했다.

의를 통해 도로부 및 교량부에 상수도관을 설치할 수 있었으며, 지난 7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부분개통에 맞춰 신시도~무녀도(고군산대교)까지 상수도관 매설을 완료했다.

김인성 수도사업소장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사업지역으로 상수도 시설사업이 불가피하게 장기화되고 있으나, 내년초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배수지 설치와 무녀도~장자

도 도로공사구간 상수도관 설치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를 통해 선유도 등 5개 도서 709세대 1,533명의 고질적인 식수난을 완전히 해소하고, 선유도 등 고군산군도 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위치를 위하여 안전한 생활용수공급 기반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라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 군산시 나운2동, 복지허브화 퍼스트 무버 역할 '특목'

군산시 나운2동의 복지허브화사업 우수사례를 배우려는 전국 지자체들의 기관방문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복지허브화란 읍면동에서 먼저 찾아가 복지대상 발굴·심층상담, 가구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위기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지원하는 것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목적을 두고 있다.

나운2동은 지난 4월 18일부터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해 복지사각지대 일제 조사 지역연대 통합사례관리, 수급장바구니 주거환경개선, 나눔 캠페인 전개, 지역주민 욕구조사 등을 수행해 복지허브화 퍼스트무버(first-mover, 선도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부안읍을 시작으로, 강원도 고성군 광주광역시 금호동·양동·양동동·광천동·유덕동·동천동·안남동·서천동 등 10개 지역에

서 240여명이 방문해 복지허브와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 하려는 지자체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최낙산 나운2동장은 "관내 저소득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복지욕구를 여러 지역자립과 개발·연계하고 특히 지역의 각종 복지기관과 협하여 인적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 군산2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증설사업 올해 말 준공 내년 시운전 가동 예정

군산시는 복합 환경플랜트 사업인 '군산2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올해 말 준공하여 내년부터 시운전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군산2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총 시설용량 3만3000m<sup>3</sup>/일 규모 총 사업비 578억원으로 2단계로 사업이 진행되며,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시설용량 1만3000m<sup>3</sup>/일 규모, 336억원이 투입되어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 50%를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은 새만금산업단지 조성 대비 기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새만금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유입 연계 처리하는 동시에 군산2국가산업단지의 오·폐수 유입증가량을 처리하고,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친화공간으로 병행 조성하는 복합 환경플랜트 사업이다.

주민·환경친화형으로 재탄생한 군산2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절하게 보전하는 물론 태양광·풍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테마파크 및 조류와 생태식물을 관찰·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원 등이 병행 조성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친환경 교육·문화의 장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현재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인 OCI-SE, 도래이, 솔베이사 등이 이 시설을 이용하여 시험 부수를 완료하고 오폐수를 방류중이며, 군산2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인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인 오·폐수 처리에 민전을 기하고 있다.

김인성 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수생태계를 보전하여 시민들에게 체험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친화형 복합 환경플랜트라는 시너지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 군산시,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제작 배부

군산시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공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청탁금지법의 해설과 사례별로 정리한 매뉴얼 200부를 제작해 시 산하 전부서에 배부했다.

이 책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운영에 관한 사항 ▲청탁금지법 신고 사무 처리지침 ▲관련 법령 등 총 5장 23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공무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정청탁 대상 직무 및 예외사유, 부정청탁의 처리절차, 수수 금지 금품 및 예외사유,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Q&A 방식으로 수록했으며, 청탁금지법령과 시행령까지 수록하여 청탁금지법 시행시 혼란과 위반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로 구성되어 있다.

군산시는 청탁금지법 T/F팀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지난날 전직원을 대상으로 주요내용 등 법률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법 시행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 익산평생학습축제 시 부서별 행정지원 보고회

익산시는 2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평생학습축제 시 부서별 행정지원 보고회를 갖고 각 실과별 준비상태를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축제 개요 설명 및 안전하고 체계적인 축제 운영을 위한 실과별 지원 계획 보고가 이루어졌다.

시는 이 자리에서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단체장 및 실무자로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축제 전반에 관하여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난 8월 12일까지 홍보체력관 및 발표회 등 참가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7회째를 맞는 이번 익산평생학습축제에는 오는 10월 6일 저녁 7시 송라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전야제)평생교육인의 밤, 힐링 아카데미에서 방송인 김화래의 행복은 유머다 명사특강을 시작으로 배우고 나누며 즐기는 평생학습 보석처럼 빛나다 주제와 '소통의 열쇠' 문화 그 짜릿함!이라는 주제로 10월 7일 ~ 8일 중앙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시 관계자는 "평생학습축제를 통해 주민들 문화교육의 중요성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익산=장왕원기자

## 익산시, 재가장애인 인권실태 점검 실시

익산시는 10월 21일까지 재가 장애인

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그간 익산시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인권실태 점검을 했으며,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가 장애인에 대한 인권 실태 점검은 올해 처음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청주 추사동 노예 사건, 타이어 수리점 노예 사건' 등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발달 장애인 인권침해와 착취 사건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권 시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의 인권 실태를 파악할 필요를 절감해 실시하게 됐다.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집중 신고기

간'도 함께 운영된다. 장애등급 재관정시기 경과자,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가구주가 정신적 장애인인 세대를 대상으로 장애인 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조사하고, 소재 불명자는 장기 미거주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재 파악을 위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인권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군·읍·면·동·자치단체,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조치도 함께 진행한다.

/익산=장왕원기자